

區民회관 官邊단체서 「점령」

12곳 無料로 암체入住

住民위한 「취미교실」등 임투못내

서울시가 지난 86년부터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건립한 구민회관에 각종 관변 단체들의 사무실이 마구잡이로 일주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중구 용산 성동 등 대부동 등 12개구에 구민회관이 있으며 오는 93, 94년까지는 중랑 도봉구 등 5개구에도 구민회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들 12개 구민회관에는 시의회 재향군인회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관 등을 관변단체들이 대부분의 회관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어 구민들의 취미 부업교실 등 강의를 부속으로 제대보훈연맹 등이 구민회관 1층에 입주해 있다. 또 2층은 구의회, 3층은 대강당으로 사용되고 있어 구민회관의 본래 기능인 부녀교실 취미교실 등 은 지하 1층에 하나뿐인 37평짜리 강의실을 5백여 평의 수감생활이 교대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같은 강의실 부족으로 다양한 강좌 개설은 임투 못내지 못하고 있다. 서초구민회관의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 다른 곳을 빌려 구민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구민회관으로 사용하며 시우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등 5개의 관변단체를 3층 건물 중 2층의 60% 이상을 내주고 15평짜리 강의실 한곳을 양재미용업협의회 기계자 수들의 수강생 2백19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구민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들 단체와 관련된 법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나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재향군인회 등 일부 단체외에는 법적으로도 없이 사무실

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들 단체와 관련된 법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이나 자유총연맹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재향군인회 등 일부 단체외에는 법적으로도 없이 사무실